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1. 개념학습 6강 당신이 나무를 ~ 신영복 분석서술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 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편지글의 형식으로 시작→ 독자들에게 친근감과 부드러움을 줌. / <당신>: ① 편지 받는 특정한 대상 ② 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 ③ 동시대의 사람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風霜)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였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좁은 면적만을 차지한 채 긴 세월 동안 우람하게 큰 소나무./ '신발 한 켤레의 토지' : 은유법)이 충격이고 경이였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소광리 숲에 대한 비유. 6문단의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와 서로 조응됨. / 은유법, 의인법 둘 다 쓰임) 같았습니다.

▶ 소나무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이루어 내지 못했음을 반성함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려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별 한 개’, ‘소나무 한 그루’: 소중한 가치있는 것(자연), 아름다운 것에 공통점이 있음)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복원 공사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宮制)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소나무를 베는 것)은 이틀이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경복궁 복원에 엄청난 나무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인식)입니다.

▶ 소나무를 베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반성과 비판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설의법)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 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 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현대인들의 소비행태 및 비정한 산업 사회의 모습 비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폭력적 소비의 주체→폭력적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람)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광리에서만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 이윤 추구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폭력성을 비판

산판일(산판에서 나무를 베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不文律)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怒氣)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 온 혈육 같은 나무(항상 인간과 가까운 곳에 존재하던 소나무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의 한을 달래 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高節)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상품 미학) 금강송의 곧은 동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곧은 지조를 읽어 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 현대 상품 미학 ↔ 소나무의 정신적 기상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나무'→'소나무 같은 사람': 논의의 확장. '소나무 같은 사람': 무한 경쟁의 논리를 견뎌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문명에 고립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한 존재들)**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소나무의 저력, 희망, 의지)**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侵襲)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관련 속담 :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 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 대해 비판적)

▶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1문단의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이 글의 유기적 구성을 알 수 있는 부분)**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솔방울처럼 희망을 품고 저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함 강조)

▶ 솔방울의 끈질긴 생명력 예찬.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응하는 저력이 필요함을 제시
-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수필, 서간체 수필, 기행 수필

■ 성격: 비판적, 사색적

■ 제재: 소광리 소나무 숲의 소나무

■ 주제: 무차별적인 소비와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소나무'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필요성

■ 특징:

- ①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형식을 취해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글쓰기를 보여 줌.
- ②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인식을 보여 줌.

- ③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과 대조적인 존재로 '소나무'를 설정하여 교훈과 깨달음을 제시함.
- ④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문제로 확장함.

▣ 문단별 내용 정리

- 1문단: 소나무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제대로 무엇 하나 이루어 내지 못했던 지난 날의 자신을 반성함
- 2문단: 소나무를 베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반성과 비판
- 3문단: 이윤의 추구를 위해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폭력성을 비판
- 4문단: 현대 상품의 미학과는 대조되는 소나무의 정신적 기상
- 5문단: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
- 6문단: 솔방울의 끈질긴 생명력 예찬.